

#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야 할 역사학

## 일본인 학자가 본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마구치 사다도시(馬淵貞利)

일본동경학에대학 교수

해마다 광복절 즈음이면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상황을 분석한 책들에 새삼 관심을 쏟게 된다. 우리 민족이 일제 지배를 벗어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이 시점에도 지난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서야 할 연구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일제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학계에서 더욱 활발한 결실과 함께 논의가 진전돼 왔다. 이제 더욱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의 성과물들을 돌아보아야 할 단계다.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일본의 마구치 사다도시 교수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를 바라보는 진지한 견해를 밝혀 주셨다. 학계와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

다른 연구분야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엽 이후 한국에서 역사연구가 급속히 발전한 것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는다.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에서의 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연구도 수년 동안 질과 양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진전하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현재 주로 한국 해방 후의 사료를 읽고 있는 필자는 민족해방운동사에 관해, 문외한이기는 하나 편집자의 의뢰를 받은 기회에 두세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말해보고자 한다.

### 연구 관점의 내면화·주체화

최근 한국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운동의 다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체상이 풍요롭게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우리들이 최초로 접한 연구는 츠보에 센지(坪江仙二)의 《조선민족해방운동사》(개정증보판 1966) 이외에 북조선 사회과학연구원 역사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근대혁명운동사》(1964), 이나영(李羅莢)의 《조선민족해방운동사》(1960), 그리고 서대숙(徐大肅)의 《조선공산주의운동사》(1970) 등이었으나, 이어 한국에서 이현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집문당, 1982),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일조각, 1984),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일조각, 1985), 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지식산업사, 1989),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1990) 등이 속속 출간되었다.

이들 역저를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틀이 보다 주체적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독립운동, 부르주아 민족주의운동,

사회주의·공산주의운동, 항일무장투쟁, 노동운동, 청년·학생·부인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을 구성하는 제 요소의 틀이 제시되어왔으나, 각 운동이나 투쟁의 구체적 실상이 반드시 잘 알려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간의 연구는 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각 운동의 상호관계에 크게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한국민족해방운동을 연구하는 관점의 내면화·주체화가 1980년대 후반부터 진전된 듯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 역사학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세와 관련이 있다. 관점의 내면화·주체화는, 한편으로는 한국민족해방운동사의 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을 주체로 하는 역사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조선공산당과 동당이 지도하는 대중운동의 움직임은 코민테른의 지도의 관계에서보다도 공산당 속에 내재된 계기에서 파악하고자 지향한다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화정 구상 혹은 3·1 운동 뒤에 확산되는 여성운동 이념 등을 구미사상의 영향으로서 파악하기보다도 한국사의 맥락 속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짐작할 수 있다(한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 민족해방운동연구》(1989) 등).

한편 후자의 경우, 독립운동 단체나 사회주의사상단체의 지도층 뿐만 아니라 그 참가자나 구성원의 성격분석이 시도되고,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대중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연구경향이 그것이다(한국사연구회 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1995) 등).



1919년 3월1일, 서울 광화문 고종청경 기념비각에서의 시민 만세 시위.

이러한 연구의 방향성은 자칫하면 주관적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개개의 문제를 언제나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자세가 유지되는 한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족해방운동의 개념 엄격히

최근 한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에는 대체로 이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민족해방운동을 다양하게 인식하는 데는 필자도 찬성이지만 민족해방운동의 개념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족해방운동은 그것이 목표로 하는 시간 간격이 길든 짧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배제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식민지하의 운동이 어떤 것이든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민족독립문제에 관련된다고 해서 다양한 내용을 지닌 운동을 포괄적으로 민족해방운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내용적 풍요를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개별적인 운동이나 행동이 민족해방운동으로 연계되느냐 하는 엄밀한 검토야말로 역사학이 요구하는 과제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 민족해방운동이 각 역사

적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닌 것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산 총공업의 경우 원산의 부두노동자가 자기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혹은 거기에 일본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 결부되었는지는 지극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다. 그에 더하여 말하면 원산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나아가 현실의 민족해방운동 담당자나 민족해방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비로소 민족해방운동과 그 운동의 연계가 명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내재적 발전론에 관해 말하자면, 운동이나 사상의 내재적 연관을 밝힌다는 것의 적극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그 내재적 연관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복辟(復辟) 운동과 민족운동의 관계를 볼 때, 그에 관련된 인물의 일치를 설명하였다고 해서 두 운동의 내적 관련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 인물이 어떠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상적 전개를 다하였던가를 밝히지 않으면 역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역사학에서의 내적 연관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

# 책을 고귀한 상품으로 만듭시다

가치있는 책은 독자의 서가에서 수십 년 간 빛을 발합니다.



미국 최고의 할인 체인점 월마트가 우리 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유통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 저가 중심의 마케팅을 잘하는 유통회사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출판서적업계에서도 은연중 가격 파괴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할인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출판사는 도매상 출고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매상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상품을 빨리 현금화시켜야 하는 출판사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출판인들이 유통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기품마저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출판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출판인들이 책을 값싼 상품이나 독과점 상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판계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찬연히 피어오르는 지성의 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출판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의 생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전이나 명저가 잘 읽혀지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출판은 지성을 수호하고 역사를 잇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인의 독서 양태는 출판인들이 책에 부여하는 의미 이상으로 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있는 책은 독자의 서가에서 대를 이어 물려질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승부하다가 많은 재고가 남아서 종이값만 받고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값싼 상품을 만들지 말고 생명이 긴 명저를 출판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책들은 유통체계가 허물어지고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독자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자와 무기력자

하인츠 스포젤/정복희/A5신  
336쪽/10,000원

영웅들의 주치의의 뭘 보고, 뭘 숨겼나?  
역사적인 인물의 주치의의를 통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운명적인 만남을 기술한다.



호칭과 지칭 예절

류재봉/A5신/424쪽/10,000원,  
13,000원(양장)

이 책은 호칭어 체계를 현대적으로 분류하고 전승해야 할 바른 호칭어, 지칭어, 변화된 것이나 새로 생긴 것 중에 학계에 서 인정된 것을 선별하였다.



지구 그 아름다운 설계

구보 아리마사/이종범/A5신  
228쪽/5,000원

지구와 우주 생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성경이 놀라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한 사진과 명료한 논리로 쉽고 재미있게 보여 준다.

## 최근 한국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에서

### 특징적인 것은 우선, 연구가

### 축적됨에 따라 운동의 다면적인

###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 전체상이 풍요롭게 서술했다는

### 사실, 둘째 연구관점의

### 내면화·주체화로 운동사의

### 내적 요인을 중시하고 민중을

### 주체로 하는 역사이해를 강조

###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라,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적 계기와 외적 계기를 분리하는 논의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어느 편을 중시하느냐의 사고방식은 본래 그러한 구별을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거기에서는 개개의 내적 연관을 규정짓는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속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도그마적 관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족해방운동사 연구는 때로 민족적 사명감을 잃어지고 행하는 연구이므로 민족적으로 안과 밖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사고가 더한층 개입하게 된다. 민족주체적인 연구방법론을 수립하려면, 역사적 고찰을 왜곡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몰라 덧붙이자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곳곳에 민족주체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사고가 현존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역사분석의 대상이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나 역사학은 그러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사회주의 사상 형성의 고찰

셋째 한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문제, 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사회주의(공산주의)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하였는가의 문제를 예로 들어, 그러한 문제의 역사적 고찰은 어

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 당시 한국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 그들에게 어떤 사상적 준비가 있었는가는 확실히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건이다. 그러나 그 사상으로 그들이 접하는 방식이 어떠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이뤄지는가는 역사연구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상의 '변용'이란 그 맹아가 반드시 당사자인 본인의 머리 속에서 숙성하여 비로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토양이 없는 곳에 접목된 사상이 강한 힘을 지니리라는 사실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사상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온갖 종교나 민족주의에서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독립운동가가 러시아인으로 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경우와 일본 대학에서 같은 일본인 동료로부터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까의 문제도 바로 역사적 문제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반화시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거나 예를 들어, 한국 독립운동가가 구한말의 유생이었던가 혹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보통교육을 받은 인물 이었던가에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의식에 변화는 없는가, 시대에 따른 정신적 풍토의 이질성이 개인의 사상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또한 거의 변치 않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는 문제도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

\* 마구치 사다도시 교수는 《조선사》(공저, 山川出版社, 1985), 《조선의 역사》(공저, 三省堂, 1993)의 저서와 <갑오농민 전쟁의 역사적 위치>, <조선사에 있어 민족과 국가> 등의 논문을 저술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